

철강은 주력품목... 나눔은 기본품목

나눔경영 적극 실천하는 포스코



환경개선 봉사



집수리 봉사



환경정화 활동

농촌일손돕기·농기계수리에 장학금·결식어린이 지원까지 지역상생 다양한 봉사활동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제철보국'(製鐵保國=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보답하겠다)의 창업정신으로 설립한 포스코는 직원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통해 나눔경영에 나서며 다른 민간기업보다 투명한 '포스코형' 경영성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1978년 사내 봉사그룹 결성을 시작으로 지역 복지센터 중심 봉사에서 1988년 광양 하광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본격화됐다.

이후 지역에서 농촌일손 돕기와 농기계 수리, 음악치료, 지역학생 장학금 지원, 결식어린이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발전했다. 직원 부인들 또한 2000년에 '새살림 부인회'를 조직해 지역의 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뒷받침하고 있다.

◇1978년 '나눔경영' 봉사활동 시작 = 이처럼 포스코 직원들은 봉사단 창단 이전인 1990년부터 12년동안 연평균 1인당 3회 정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연 참가인원이 68만3000명에 이른다.

포스코는 기존의 봉사활동을 전문화·체계화 하는 '봉사지원팀'전담부서를 지난 2003년 만들어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필요한 대상과 회사를 연결하는 자원봉사 중계센터를 개설했다.

- 1978년 사내 봉사그룹 결성 지역복지센터 중심 봉사
- 1988년 광양 하광마을과 자매결연 맺으며 본격화
- 2000년 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새살림 부인회' 조직
- 2003년 '봉사지원팀' 전담부서 만들어 전문가 채용
- 매달 셋째주 토요일 '나눔의 토요일'로 정해 봉사
- 2009년 '포스코패밀리 봉사단' 통합, 광양 등 4곳 운영
- 2010년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 시작~ 세계 각국서 일주일간 봉사
- 2014년 중학생 공감능력 키워주는 '트리즈 창의봉사단' 창단

683,000명
12년간 봉사활동 참여 인원

이후 포스코는 매주 셋째주 토요일을 '나눔의 토요일'로 정해, 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 자매마을, 복지시설 등에 봉사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에 패밀리 사도 봉사단을 창단해, 지난 2009년부터 각 패밀리사별로 운영하던 봉사단을 '포스코패밀리 봉사단'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현재 포항, 광양, 서울,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대규모 연합 봉사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전세계 포스코 패밀리가 진출 지역에서 1주일간 봉사활동을 펼치는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Global Volunteer Week)'를 시작했다.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for a better world)라는 주제로 22개국에서 5만3000명이 참여해 인재 양성, 다문화가정 지원, 환경, 지역사회, 문화보존 등 포스코의 사회공헌 중점 5개 영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봉사활동 중이다.

최근 들어 전문역량과 취미를 연계해 사회적 영향력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

는 봉사활동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광양만과 포항 영일만 인근에서 수중 쓰레기와 불가사리 등을 수거하는 스킨스쿠버 동호인 중심의 '클린오션 봉사단'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에게 스킨스쿠버 장비와 교육을 지원해 전문 스쿠버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봉사자들은 전문 역량을 발휘해 수중 정화활동을 한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호응이 커 처음에 100여명으로 시작된 봉사단이 3년 만에 598명 수준으로 증가 추세로 올해 1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예방사업인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은 학교의 어두운 공간을 밝고 소통이 잘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다.

건축감리 회사인 포스코A&C는 벽화 그리기 전문봉사단을 창단해, 전국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사와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창의력을 활용한 문제해결 기법인 '트리즈'(TRIZ)를 활용해 중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공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트리즈 창의봉사단'도 창단

혁신실업·서희건설 등 전문 패밀리사들 공동 참여 광양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호응

했다. 트리즈 창의봉사단은 '여자친구에게 짜장면 배달하기', '나로호 추락시간을 지연시켜라' 등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체험 학습을 통해 친구들간 공감 소통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직업군을 갖춘 포스코 패밀리사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꿈멘토링 봉사단'을 창단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광양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호응 = 또한 광양에서 포스코 패밀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꼽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혁신실업, 두양전력, 서희건설 등 전문 패밀리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빗물이 새는 낡은 지붕과 부엌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된 전기선과 전등을 교체하는 등 내부 보수작업은 물론 집 외벽까지 페인팅을 해주고 있다.

광양제철 생산기술부 '프렌즈 봉사단'은 합동 결혼식을 주도하고, 결혼식을 올린 다문화가정의 매달농장을 찾아 수확작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달 수확은 물론 광양시의 특산물인 매실에 대한 안내와 다양한 조리법을 이주여성들에게 전수해 광양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이순신대교 등 6종 디자인·상표 등록

갈수록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이순신대교'를 비롯해 '이순신 장군', '섬진강 두꺼비' 등의 형상을 이용한 디자인 및 상표를 개발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번에 상표 등록을 마친 캐릭터는 ▲이순신 대교 형상(2종) ▲이순신 장군 형상(2종) ▲섬진강 두꺼비 형상(2종) 등 총 6종 32류이다.

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유무)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난해 이순신대교 준공을 계기로 디자인과 상표 개발에 착수해 이번에 등록하게 됐다. 특허청 출원 등록은 번리사를 통해 각종 디자인 등록 절차 이행에 6개월, 상표를 등록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됐다.

캐릭터 '이순신대교'는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광양항 컨테이너선과 함께 디자인했고, '이순신장군' 형상은 장군의 위엄과 명성을, '섬진강 두꺼비'는 섬진강(다압면 섬진마을)와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복(福)을 상징화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디자인 보호기간은



광양 이순신대교



섬진강 두꺼비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10년간이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등록된 디자인 및 상표를 활용해 광양시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홍보관 설치 새 볼거리 제공

광양시가 구봉산 전망대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완공된 구봉산 전망대의 관광 부가 가치를 높이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홍보관을 설치했다.

홍보관은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대형 멀티스크린, 인터넷 카페, 특산물 전시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광양시의 산업·문화·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게 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오전 9~오후 6시) 운영되며, 주말과 휴일에

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 관광안내를 할 예정이다.

구봉산 전망대에는 현재 평일 200여명, 주말 500여명 등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구봉산 전망대는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접근성과 조망권이 양호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봉산은 광양만 일대가 한눈에 조망되고, 조선시대에는 여수·하동의 신호를 받아 남영으로 연결하는 봉수대가 있던 곳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의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효창건설(주)

전문건설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지붕판금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

효창건설(주)
대표이사 송재무
T (061)792-5577 H 010-3622-7755
위치 : 광양시 강변로 41 (광영동)